

코로나 시대 개인과 사회, 생각을 공유하다



23일까지 전일빌딩 245
시민·작가 49명 참여 작품전
2월 온라인 전시 계획도



김미숙 작 '존재의 지평선'



곽유미 작 '심재의 미학'

‘코로나, 시민들이 그려낸 우리의 자화상.’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학문과 예술을 공부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시민자유대학(학장 류재한)은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함께 미술 실기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시민들도 미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다. 또 시민과 작가가 별개의 존재로 이원화되는 분위기에도 줄이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첫 해인 2017년에는 시민자유대학 회원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018년부터는 미술캠프를 운영, 좀 더 체계적인 강좌를 열고 결과물은 전시회를 통해 선보여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열린 2021 미술캠프에는 40여명이 참여했다. 김용근·조성숙·최순임·이정기 작가의 지도를 받은 참가자들은 그리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재료를 선정한 후 작가의 작업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왔다.

시민자유대학 미술제가 오는 23일까지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캠프 참가자 중 30명과 일반 시민, 작가 등 모두 49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생각의 무늬’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을 건너오면서 시민들은 달라

진 일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런 때, 예술은 다른 어느 때보다 생각을 기록하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는 그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을 만나게 될 예정이다. 초등학생부터 교사, 연구자, 의료

인, 건축사, 음악가 등 전시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했다.

김동혁 교사는 집을 직접 지었던 아버지를 기억하며 작품 ‘D.H의 클레이 수필’을 제작했고, 코로나로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초등학교 4학년 김서후 군은 “축구만큼 미술도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시에 ‘여름바다’를 출품했다. 그밖에 채선희·정애화·박새별·박우용·모윤미·함순아·강효금·이민영·이미경 씨 등이 작품을 내놓았으며 전시 도록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과 캠프 참여 소감 등이 함께 실려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도 엿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또 지도를 맡았던 작가들을 포함해 고명인·김성민·김성대·김준영·박은정·서기문·이유미 등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으며 노영대 시민자유대학 이사 등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미술제는 2월 중 메타버스 상에서 온라인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자유대학은 동서양 고전, 예술과 미학, 사회와 철학, 과학과 생명, 말글책, 도시 인문학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다. 문의 062-961-111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의 전쟁과 치유, 성찰을 묻다

ACC, 27~30일 ‘After War 전쟁 후에’ 공연



무대 중앙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양쪽에 객석이 있다. 극의 시작과 함께 무대에 흩뿌려지는 300kg에 달하는 해바라기씨, 얼굴 없는 귀리인형들, 허공에 매달린, 그네 등 다양한 상징적 장치물들이 배치된다. 관객의 호기심과 상상을 유도하는 장치다.

아시아의 전쟁과 치유, 성찰을 묻는 작품에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은 국제 공동창제작 공연 ‘After War 전쟁 후에’(사진)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예술극장 1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전쟁은 무엇이며 누가 시작했는지,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번 국제 창작작 공연사업은 아시아문화를 모티프로 국내외 공연예술가와 제작자가 콘텐츠 창작자 선순환 활성화를 아시아성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작품은 현대 연극계 3대 거장인 유제니오 바르바가 창당한 북유럽연극실험소-오딘극단과 함께 창작했다. NTL-OT는 11개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연 시 예술가들의 모국어(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덴마크어, 프랑스어, 슬로바키아어 등 6개 언어로 펼쳐져 서로 다른 언어가 주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앞서 ACC는 NTL-OT와 함께 2019년 제2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 기간에 아시아문학상 수상작 ‘전쟁의 슬픔(바오린 작)’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작 공동연수 ‘시와 음악이 있는 광주 연극’을 선보인 바 있다.

‘After War 전쟁 후에’는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죽은 원혼들 사이에서 자신이 전쟁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답을 찾아가는 청년의 삶을 그렸다. 어떻게 하면 정의가 실현되는지 관객 스스로 답을 찾기를 요구한다.

무대를 사이로 양쪽에 관객석이 위치하고, 한쪽

구석에 오케스트라단이, 무대 양편에는 스크린이 각각 자리한다. 창작자들이 직접 만든 소리와 노래들이 무대 위를 흐르며 서사적인 시공간을 오간다. 추상적인 이미지의 비디오 아트는 무대의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몽환적인 빛과 색깔로 이야기를 채운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공동 제작사로 참여해 한국과 덴마크 예술제작진 교류를 통해 분공연을 완성했다. 프로듀서협회와 NTL-OT는 지난해 8월부터 화상회의를 통해 주제를 비롯해 방향성, 제작 방식, 연습 일정 등을 조율했다. 그리고 10월부터 약 2개월간 한국 예술 제작진이 덴마크 홀스테보르시의 NTL-OT를 방문, 공동연수와 공연 연습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누리집 참조.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2030세대 결혼·출산 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최근 ‘광주지역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2030세대 결혼·출산 인식조사’(사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결혼·출산의 핵심세대인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통적 역할규범(젠더의식에 기반한 규범)과 변화된 행동양상을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연구 결과 2030 미혼남녀는 직업의 안정성 확보를 결혼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은 경제활동을 통한 개인의 삶과 결혼으로 인한 구속과 책임에 대한 부담, 부부간 평등한 관계와 권리를 미혼남성보다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제적(취업, 고용불안, 양육비) 부담과 사회적(양육·돌봄 역할) 부담,

미혼남성의 저조한 성평등 의식은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연구 결과에 대해 ‘청년의 취업, 주거,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행복 요건 강화’, ‘청년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통한 임신·출산 기반 강화’, ‘부부, 부모 지원을 통한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등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062-670-054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로얄 발레 갈라 페스티벌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2022 광주 로얄 발레 갈라 페스티벌’이 오는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광주로얄발레단(단장 박선희)이 다양한 작품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신년 갈라 콘서트를 준비했다.

‘2022 광주 로얄 발레 갈라 페스티벌’이 오는 22일 오후 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 로얄 발레 아카데미 정규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광주예고 졸업생들이 꾸미는 뜻깊은 무대다.

이들은 이날 4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첫 번째 작품은 베니스축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면무도회 ‘베니스카니발’이다. 여왕과 왕이 추는 2인무는 경쾌한 리듬에 빠른 움직임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탈리아 정서와 아름다운 의상과 가면을 쓴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이 돋보인다.

이어 선보이는 ‘라 실피드’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요정들이 전하는 ‘사랑’에 관한 스토리다. 스코틀랜드 농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2막 발레로 약혼을 앞둔 제임스가 공기요정 라 실피드에게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랑파클레식’은 빅토르 그소브스키가 ‘마르코 스파타’의 음악을 발췌해 새롭게 각색한 2인무로 정통 고전발레의 우아하고 귀족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공연의 대미는 ‘파키타’로 장식한다. 총 3막으로 구성된 궁중발레로 집시소녀 파키타와 프랑스 점령군 루시앙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프랑스풍의 우아함과 이탈리아풍의 활발함, 스페인풍의 정열미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대에는 김시진·이은수·이준수·오시현·박솔·문소이·임재현·이재원 등이 오른다. 무료관람. 문의 062-682-321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국문예위 ‘작고문인 선양사업’ 2월4일까지 공모

문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고문인에 대한 선양사업이 추진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작고문인 선양사업’ 공모를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작고문인 선양을 통해 한국문학의 성과 재정립 및 우리 문학의 진흥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선양사업은 지역중심의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작고문인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작고문인 선양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문학관련 민간단체와 공·사립문학관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단체는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입증 가능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의방법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